잘못 묻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㉟ 영화 〈파묘〉



영화 〈파묘〉의 한 장면.

학교 다닐 때, 소풍날이나 운동회에 비가 오면 아이들끼리 소곤대곤 했다. '우리 학교 처음 지을 때 땅을 파는데 피가 쏟아지더니 커다란 이무기 몸통을 잘랐대. 하루만 더 있으면 용이 되어 승천하려던 이무기였는데 그렇게 죽게 되면서 원한을 품고 저주를 내렸대. 그래서 소풍날이나 운동회 때마다 비가 오게 된 거래.' 뭐 이런 이야기들.

황당하지만 뭐,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는 아니기도 하다. 근대적 학교는 갑자기 넓은 빈 터를 필요로 했고, 풍수를 오래 존중해온 문화권에서 좋은 땅은 이미 '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에서는 이미 사람이 들어 살거나 땅값이 엄청 비쌌고, 농사가 경제의 바탕인 사회에서 볕 잘 들고 땅 힘 좋은 터는 논이 되고 밭이 되었으며, 사람 모여 살만하지 않은 산골에서도 자리가 좋다 싶으면 이름 있는 집안 대대로 선산 묏자리로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값이 헐하고 살만 하지 않은 터는 학교 자리가 되고, 병원 자리가 되다 보니 흉한 이야기가 돌게 되기도 했을 것이다.

과학도 학문도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문화와 만나 장르가 되었다. 오컬트, 과학적으로 규명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 가령 귀신이 들렸다거나 저주에 씌었다거나 괴수가 날뛴다거나 하는 이 장르는 판타스틱 문학과 영화의 큰 축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납량특선'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오컬트가 개봉되고는 했다. 으스스한 내용의 영화들을 보면서 더위를 물리치라는 상업적 계산으로. 냉난방 시설이 보편화 되면서 오컬트도 계절을 타는 장르가 아니게 되었다. 3.1절을 앞두고 〈파묘〉가 개봉하게 된 것처럼.

공포와 불안, 긴장과 불길함이 관람의 한 요소가 되는 장르다 보니 매니아는 있어도 초대박이 쉽지 않은 장르가 오컬트인데 지금 〈파묘〉(장재현 감독)의 기세는 한국영화 오컬트의 역사뿐 아니라 흥행사 자체를 새로 쓰고 있다.

망자는 천도재로 이끌 수 있지만
산자는 삶을 이어 나가야 하기에
과거를 돌아보는 파묘는 계속된다

이 영화 자체가 역사를 파헤치듯이.

〈검은 사제들〉, 〈사바하〉 등 이미 오컬트 장르를 빚어내는 데 탁월한 장재현 감독이 풍수, 장례지도, 무당 역을 맡긴 배우들은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이도현이 뭉친 '묘벤저스' 4인방. 이들은 각각 장르 영화나 드라마에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연기자들이다. 이들을 위협하는 '험한 것'도 영상 콘텐츠에서는 이미 대세가 된 CG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배우 김민준과 농구선수 김병오 두 사람이 실제 몸으로 연기한 것이라 인공적인 화면과는 결이 다른 날것 그대로인 육체에서 나오는 조화와 긴장이 배어있다.

'험한 것'의 존재감이 살아 있는 것이듯 〈파묘〉의 이야기도 살아 있다. 영화는 한국의 무당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데서 시작한다. 현대의학으로도 까닭을 모르겠는 증상으로 앓고 있는 아기의 병세를 살피러.

아기도 아기지만 장손들에게 흉사가 대물림하는 내력까지 알아챈 무당이 말하기를 조상 묘를 잘못 써서 문제란다. 미국에 이민 가 으리으리하게 살고 있던 집안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길은 집안 내력을 되짚어야 하는 길이고, 그 집안이 무덤 속에 묻어버린 일들을 파헤쳐 드러내는 길이고, 조상 모시는 정성을 최고의 효성으로 치는 장례문화와 묏자리로 조상 덕 보겠다는 풍수사상의 뿌리가 깊은 문화권 출신이니 성공한 이민자 집안에서 파묘 비용에 10억 들이는 걸 감당하는 것도 과하긴 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려니 싶다.

묏자리 길흉을 살피려니 풍수를 봐야겠고, 흉한 묏자리면 예전 묘를 파헤쳐 망자의 시신을 새로 수습하려니 장례지도사가 같이 살펴야겠고, 받은 돈이 크니 최고끼리 모여 나서기까지 망설임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막상 묏자리를 가보고서 당황한다. 상식적으로 묘를 쓸 자리가 아닌 곳에 자리한 무덤, 무덤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여우 무리, 파묘하고도 관을 열지 말고 염도 새로 하지 말고 바로 화장하라는 의뢰인 집안, 이런 일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 눈으로 볼 때 위험하고 흉한 일이라 보수가 얼마든 거절하고 싶어진다. 그래도 이들이 결국 나서기로 한 건 아기 목숨이 달렸기 때문이다.

〈파묘〉는 앞으로 살아갈 존재에게 닥친 위기에서 시작해 그 존재를 위협하는 과거의 망령, 그 망령이 숨기고 있는 것은 그냥 과거가 아니라 뒤틀린 역사, 그 역사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촘촘한 업보의 망이 무덤 하나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들이댄 돋보기 같은 영화다.

일제강점기에 작위 받아 부와 권세를 누린 친일 집안에 맞서 항일독립군이 겨루고 있었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있는 집안일수록 풍수 따져가며 돈도 들이고 품도 들여온 오랜 풍습, 음양도를 믿어 음양사를 따로 관료로 등용했던 일본의 역사, 음양사 가운데도 여러 기담과 영화·만화에서 인용되는 여우의 핏줄이라는 아베노 세이메이를 빗댄 연출,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은 친일 논란들이 실제 파묘와 이장에서 이뤄져왔던 제례 형식과 무속 퍼포먼스에 어우러져 스크린을 휘몰아친다.

〈파묘〉가 불러들이는 역사나 무속은 전혀 낯설지 않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매년 '신년운세'를 보고, 액막이로 아기 백일날 수수팥떡에 해 바뀔 때면 동지팥죽, 새로 시작하는 일에는 고사떡 돌리는 풍속에 입맛 길들여지고, 무속인 찾아가 연예인들 사주팔자 보는 콘텐츠가 공중파부터 인터넷까지 넘쳐나고, 손바닥에 쓰여진 '王'자가 방송에 잡혀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 해명을 했어야 했던 게 현실이니까.

오컬트 장르가 대중적인 까닭은 그것이 무섭고 기이한 볼거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실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겪었거나 전해들은 이야기들, 일어났던 일들, 그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괴이한 소문들의 잉여가 불러일으키는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가 대중에게 공감받으면서 '있을 법한 가능성'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이 실현가능한 것일수록 더 쫄깃하고 짜릿하므로 오컬트의 뿌리는 현실을 깊이 파헤칠수록 성공적이 된다.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윤회를 믿고 영가의 성불을 기원하는 불교에서는 화장이 자연스러웠으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들은 아예 화장을 금지했었다. 가톨릭이 화장을 허용한 것도 1983년 교회법을 고치고 나서부터였고, 설이나 추석의 중심 행사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고, 할로윈은 망자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리는 행사였다. 〈파묘〉는 제대로 된 장례는 바로 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과거사가 잘못 묻어버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이 위태롭다는 걱정을 보탠 영화다. 최선을 다해 현실을 잘 살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노력해보자는 소망까지 덤으로 붙여서.

〈파묘〉의 흥행은 대중들의 기원을 담고 있다. 망자는 천도재로 이끌 수 있다지만 살아있는 존재들은 계속 살아가며 인연을 이어가야 하고, 그 인연의 다발이 역사를 이루니 현재가 잘못될 때마다 과거를 돌아보는 파묘는 계속 될 것이고, 묻혀있던 '험한 것'들을 없애나갈 때마다 현실이 그만큼 나아질 것이기에.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⑪

1. 인도의 계급사회를 규정짓고 있는 사성 계급제도 중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신 계급은?

① 불가촉천민 계급
② 사제(브라만) 계급
③ 서민(바이샤) 계급
④ 노예(수드라) 계급
⑤ 왕족(크샤트리아) 계급

해설 : 부처님께서는 카필라바스투의 왕족인 정반왕과 마야부인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즉 왕족(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태어나셨다.

2. 불교가 발생할 무렵 기원전 6세기의 인도사회의 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갠지스강 유역에 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상업이 발달함
-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붕괴되고 군소국가가 성립되면서 귀족정치, 공화정치가 행해짐(코살라, 마가다국 등)
- 상공업자가 경제적 실권 장악
- 점차 바라문 계급은 권위를 상실하고 대신 왕족 세력이 강화됨
- 아리아인과 원주민과의 결혼으로 혼혈족 탄생
- 이 시대의 인도는 사회적·사상적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음

[보기]
ㄱ. 사문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사상을 펼쳤다
ㄴ. 왕권이 강화되어 왕족은 최고의 카스트가 되었다.
ㄷ. 석가모니 부처님은 크게 성공한 상공업자의 후손으로서 당시의 관습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였다.
ㄹ. 왕족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큰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 불교가 널리 전파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불교가 발생할 무렵 자유사상가들인 사문들이 출현하여 최고의 카스트라는 바라문과는 다른 다양한 사상을 펼쳤으며, 고타마는 왕족으로 태어나셔서 출가하여 부처님을 이루신 후 왕족과 부유한 상인들의 큰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받으셨다.

3. 〈리그베다〉에 실려 있는 사성제도의 근거 신화와 관련이 없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는 이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입, 팔, 넓적다리, 그리고 발에서 태어난 것들에게 각각의 업을 정하였다. 바라문에게는 베다의 교수와 학습, 그리고 제사, 보시하기와 보시를 받는 일을 정하였다. 크샤트리아에게는 인민을 보호하는 일, 보시하는 일, 제사를 지내고 베다를 배우는 일, 그리고 감각적 대상에 집착하지 말 것을 정하였다. 바이샤에게는 가축을 기르는 일, 보시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 베다의 학습·장사, 돈을 벌어주는 일, 토지의 경작 등을 정하였다. 그러나 수드라를 위해 정한 유일한 업은 원망과 슬픔 없이 다른 삼종성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보기]
ㄱ. 현재 인도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만족하며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ㄴ. 다른 계급과의 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신분이 높은 여자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ㄷ. 노예 계급인 수드라는 일생족이라 하여 종교적 의무나 권리가 없으며 직업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ㄹ. 석가모니 부처님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신분제도는 불합리한 것이라 여기고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갖는다고 설파했다.

①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인도에서는 태어난 신분에 대한 불만으로 불교나 기타 종교로의 개종이 일어나고 있으며, 신분이 자신보다 낮은 계급과 결혼하는 여성의 경우 가족의 명예를 실추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가지 억압이 일어난다.

정답 : ① ② ⑤ ③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12대 총무원 총무부장 임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은 3월 7일 종무협의회를 열고 혜광 스님을 제12대 총무원 집행부 총무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 2023년 결산 승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회는 3월 7일 총본산 서울 일붕선원에서 불기 2568년도 제77회 임시 중앙종회를 열고 2023년도 수입 지출 결산 감사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였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제1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3월 20일 오전 11시 총무원이 위치한 인천 대성사에서 2024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아울러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였습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항시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1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